

10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0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한국은행 27일 긴급 금통위..`금융안정 대책 기대`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8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함. 안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이 붕괴된 상황이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현대차 "10월 수출 22만 5천대...사상최대"	현대차는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달 국내공장 수출 11만9000대, 해외공장 판매 10만6000대 등 모두 22만5000대를 해외시장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6일 밝혔다.
SKT, 자사주 44.8만주 1천억 매입소각 결의	SK텔레콤은 보통주 44만8000주 1,000억원 규모를 이익소각 한다고 24일 공시.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자사주를 장내 매수한다고 밝힘.
靑 금리인하·재정확대 등 5개 안정책 추진	한국 정부가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치솟는 시중금리를 안정시키는 한편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았음.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점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와 기업수익성이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 실물 부실이 은행부실로 연결되는 사이클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경기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내기업 79% "IMF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	최근 국내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현재 경영여건에 대해 기업들의 78.9%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42.5%), `더 어렵다`(36.4%)고 밝힘. 경영여건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
우크라이나, 동유럽 첫 IMF 구제금융 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에 165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
원자바오 "각국 금융위기 대응, 충분치 않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 총리는 베이징에서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폐막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각국 간의) 신뢰, 협력, 책임감이 위기 해결의 핵심"
日 주가는 바닥으로...엔화값은 천장으로	일본 엔화 시세가 13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90엔대까지 치솟으면서 일본 경제에 충비상. 도요타, 소니, 도시바 등 일본을 대표하는 수출기업들이 속속 영업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주 말 닛케이225 주가도 버블 붕괴 이후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불과 600포인트를 남겨둔 7,649.08로 장을 마감.

제목	주요 내용
日 수출기업 실적 직격탄	고우고쿠생명은 "엔고 추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관련 상장기업들은 주가수익비율(PER) 등 기술적인 분석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평가. 실제로 수출 관련주인 샤프(-69%), 소니(-68%), 닛산자동차(-64%), 스미토모상사(-60%), 닌텐도(-59%), 신닛테쓰(-59%) 등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60% 전후 급락.
"日 내년 2분기 침체 정점 달할듯"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미국 대선 후 두 달 정도 권력 공백이 불가피해 또 한 차례 급격한 시장 동요가 예상된다"며 "닛케이 주가가 8,000선이 깨졌지만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
日 미쓰비시 UFJ, 연내 1조엔 증자 검토	일본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이 올 회계년도 내 최대 1조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